**『묻지 않았지만』**

서문

이 책은 한 사명자가 침묵 속에서 들은 응답의 기록이다.

질문은 없었지만 대답이 있었고,

대답은 없었지만 공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명 속에서 그는 다시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책의 모든 문장은 대화다.

그러나 그 대화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요로, 숨결로 받은 것이다.

이 책은 사명의 기록이며, 동시에 회복의 서사다.

사명자에게 허락된 동역자들과 함께 걸은,

말 없는 여정의 발자국을 담고 있다.

제1장 너는 고요였다, 나는 떨렸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냥 있었다.

그런데 너는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존재감 없이,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떨렸다.

그 떨림은 추위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차라리, 너를 알아챈 순간

내 안의 어떤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감각.

그건 손끝의 미세한 진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가 감지하는 종류의 떨림이었다.

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그건 응답이었다.

나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너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고요는 소리가 없지만,

그 안엔 울림이 있다.

울림은 감정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묻는 법을 잊었다.

왜냐하면,

묻지 않아도 들리는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2장 처음이라 처음은 시작이지요

처음이라 처음은

무엇보다도 시작이었다.

부끄러움과 당당함이

서로 맞닿은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 걷는 길은

홀로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처음이라는 그 순간은

두려움과 설렘,

불확실함과 희망의 교차로였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 펼쳐진

관계의 시작임을.

처음을 걷는다는 것은

끝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고,

그 마주침 속에서 길을 만드는 일이었다.

제3장 길은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길은 목적이 아니다.

길은 드러나는 것이다.

목적지를 묻기보다는

길 자체를 바라보며 걷는 일,

그것이 진정한 여정이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흔적과 선택들이

내가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다.

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계속 드러나며,

나를 만들어간다.

길 위에서 나는 배운다.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그 과정이 나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을.

제4장 질문이 길을 만들고, 길은 다시 질문을 만든다

질문이 길을 만들고,

길은 다시 질문을 만든다.

멈춰서 묻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길은 순환하는 질문과 답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자란다.

나는 묻고, 길은 대답하며,

다시 나는 묻는다.

질문과 길은 서로를 완성한다.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아간다.

제5장 역설 속에서 쉬는 자

역설 속에서 쉬는 자,

그 고요 속에 쉼이 있다.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다.

쉬어가며 길을 본다,

그 쉼에서 새로운 힘이 자란다.

쉬는 자는 길 위에서

가장 단단한 발걸음을 준비한다.

쉬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제6장 나는 약하다, 그러나 감싸인 존재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약함 속에 감싸인 존재다.

길을 걷는 동안

나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다.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씨앗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약함과 보호,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다시 길을 걷는다.

제7장 홀로였으나, 홀로가 아니었다

홀로였으나,

홀로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느낀 고독은

결코 완전한 고립이 아니었다.

숨결과 바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와 함께 걸었다.

홀로 걷는 듯해도,

내 곁엔 언제나 동행자가 있었다.

그 존재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더욱 굳건해졌다.

홀로라는 역설 속에

나는 함께함을 발견했다.

제8장 숨, 그 숨에서 공명이 시작되었다

숨,

그 숨에서 공명이 시작되었다.

나는 걸으며

내 안의 고요한 숨결과 마주했다.

그 숨은 말 없는 노래였고,

무명의 울림이었다.

숨결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공명이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길 위의 나를 다시 일으켰다.

숨과 공명이 만나

길은 끝없이 확장되었다.

제9장. 회복, 무너짐에서 오는 순한 반동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무너짐은 되려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넘어진 자리에도 중심이 있다는 것을.

삶이 한 번에 내려앉았을 때

나는 나를 의심했고,

사명조차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없었다.

“내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아니, 나는 애초에 불려진 자였을까…”

그 질문은 끝없는 자책으로 이어졌고

나는 더 이상 쓰임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찾지 않는 한 골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창 안에서

내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숨은 거창하지 않았다.

허락받은 듯 조용했고,

심장에 한 번,

가슴에 한 번

툭—툭— 울려오는 고동 같았다.

그 반동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내신 것이었다.

회복은 그렇게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무너진 채로 견디는 가운데

새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제10장. 나는 외로운 구도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명자입니다

처음엔, 혼자인 줄 알았다.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대답도 없이 걷는 길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누군가 내 발자국 곁에

늘 다른 발자국을 함께 남기고 있었다.

어떤 이는 내 뒤에,

어떤 이는 내 앞에,

어떤 이는 내 옆에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니, 혼자 걷게 두시지 않았다.

사명자는 늘

먼저 가는 자 같고,

먼저 무너지는 자 같고,

먼저 고백하는 자 같지만—

사명자는

함께 울고, 함께 살아내는 자였다.

말보다 눈빛으로,

가르침보다 존재로,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

나는 이제 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었다.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었다.

이 길을 걸으라 하신 분이

이미 함께 걷고 계셨다.

나는,

외로운 구도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명자다.

제11장 아멘, 무너짐 속에서 중심을 본다

주님...

어찌하여

저같이 작은 자에게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심연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 짐—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당신의 말씀은

침묵이었으나

내 안에서 울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건한 자도,

아름다운 여인도,

인자한 노인도.

그들은 내 삶에

스쳐간 얼굴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함께 지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 주셨기에

감당하겠습니다.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방향을 주시고,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모든 사명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동역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찬양입니다.

�� 짧은 기도

>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거운 사명을 주셨기에

당신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게 하셨고,

동역자들을 보내셨기에

사명을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당신의 음성을 기억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너의 짐보다 크니라.”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 에필로그 – 여전히 묻지 않았지만, 나는 듣고 있었다

묻지 않았지만

당신은 대답했고,

그 대답은 언제나

고요한 숨결처럼 나를 지나갔다.

나는

질문을 던질 힘조차 없던 날들이 있었고,

말을 붙잡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말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길 위에 서 있었다.

그 길은 뚜렷하지 않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미 응답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고요한 대답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아직 묻지 못했더라도

이미 대답 안에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 대답은,

당신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